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4.(화) 조간 < 2026. 11. 23.(월) 12:00 >

’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구축지원 예산 2,696억원, DX·AX 수준별 · 업종별 1,021개사 지원
- 피지컬AI 확산을 위한 부처협력, 데이터 표준·수집·활용 계획수립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1월 23일(월) ‘2027년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12월 7일(월)부터 내년 1월 6일(수)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그동안 개별 사업별로 시행하던 스마트공장 사업공고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대상사업은 ▲정부일반형, ▲제조AI특화, ▲자율형공장, ▲상생형 인공지능전환(이하 AX) 선도모델 등 4개 사업이다. 총 지원예산은 2,696억 원이며, 지원규모는 1,021개사이다.

스마트공장 사업은 인공지능(AI)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운영체계(솔루션)와 이에 연동되는 자동화장비, 센서 등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디지털·인공지능(AI) 적용 수준에 따라 사업별로 최대 2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지원된다.

선정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비 뿐만 아니라, 업종·지역별로 대표주관기관을 통한 스마트제조혁신 활동과 수출·판로·기술·인증 등 기업 지원 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중점 육성 중인 K-푸드·뷰티, 의료, 방산 등 신성장분야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관련 부처·지방정부 등이 협업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중소제조 피지컬 AI 확산 전략」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북·경남 실물 인공지능

(피지컬AI) 연구개발·실증 프로젝트 성과인 '모두의 AI 공장장'* 보급·확산을 위해 실물 인공 지능(피지컬AI) 전용 지원 분야를 신설하고 관련 자문·교육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피지컬AI 도입을 위한 AI 기반 현장 진단 및 자동화 계획 수립 지원

또한, 인공지능(AI) 선도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이 기술과 기반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해 전사적 AX를 지원하는 '상생형 AX선도모델'을 확대한다. 이는 지난 11월 18일(수) 중기부·대기업·유관기관이 모여 "AI 대전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공고에는 19개 대기업이 참여해 함께 성장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외에도,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에서 제조데이터 수집·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표준(AAS)에 기반한 데이터 표준·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단을 활용하여 구축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채용인력 현장실습을 지원하고, 구축 후 점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제조기업의 다양한 현장수요를 고려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업종별·지역별·수준별로 구조화하였으며, 공급기업 육성, 제조데이터 선순환, 전문인력 육성 등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지역기업정책관 제조혁신과	책임자	과 장	김민수	(044-204-7260)
		담당자	사무관	김종길	(044-204-7262)
			주무관	정원석	(044-204-7253)